

세션 10, 신명기 19 - 25 공동체법

Dr. Cynthia Parker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10회기, 신명기 19~25장의 공동체법입니다.

신명기 19-25장 복습 및 소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법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전을 12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12장, 13장, 14장,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잔치와 각 장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까지 쪽 진행해 왔습니다. 16의 끝에서 17과 18로.

나머지 법률 코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 코드에 있었던 다른 곳과는 매우 다르게 읽습니다. 따라서 19장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법전과 다른 형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장에서는 14장의 전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장에서 코셔와 식이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17과 18 모두. 이제 19장에서 25장으로 이동하면서 법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챕터는 더 이상 하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이 있는 특정 법칙이 약간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또 다른 점은 이 법칙들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점은 우리가 선택한 장소와 동일한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장부터 택한 곳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문과 택한 곳 사이를 오가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분산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의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서 기대되는 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된 장소는 이스라엘 사회를 조직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19장에 이르렀고 선택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소리와 이 텍스트에서 선택한 장소가 없다는 점에서 형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신명기가 발전시켜 온 주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선물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개인,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책임에 대해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9장: 우발적인 살인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19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우발적인 살인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1장부터 3장까지 할 때 아주 초반 강의에서 도피성 건설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면에 지도를 올려 놓겠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선언하기 전인 5장과 십계명을 다시 선언하기 전에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음, 19장은 신명기 4장 41-43절과 약간 다른 점을 제외하면 도피성 건설에 대한 동일한 개념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9장에 이르면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1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살인자의 경우는 이전에는 미워하지 않았으나 본의 아니게 친구를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쳐 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금 연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서 손으로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베다가 쇠머리가 자루에서 빠져 친구를 쳐서 죽게 한 것과 같으니 그는 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살인자를 맹렬히 쫓아다가 길이 멀고 그 사람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람은 전에 그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일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이 예는 정말 좋은 문화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인자는 살인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살인을 계획한 사람, 증오심에서 행동한 사람, 누군가를 찾아 죽이러 나간 사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발적 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끼 머리가 도끼에서 떨어져 사람을 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이 가족으로부터 오는 문화에 살 때입니다. 그런 다음 가족 중 누군가에게 행해진 잘못이나 범죄는 개인에게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와서 나를 죽였는데 그것이 사고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 우정을 쌓아온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수로 나를 죽였습니다. 관례상 아버지는 당신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내 피의 복수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당신일 때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쫓는 내 아버지나 가족들이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말할 수 있지만 살인으로 도망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가족을 떠났고, 땅을 떠났고, 가족 유산을 떠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흘린 피가 아니라 일종의 죽음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신명기가 이런 목적을 위해 이런 종류의 도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세 성읍을 따로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그 길로 행하면 처음 셋 외에 셋을 더하여 그 중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네 땅에서 피 흘린 죄를 네가 져야 하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거짓말하고 기다리다가 일어나 그를 쳐서 죽였으면 그가 이 성읍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데려다가 보복자의 손에 붙여 죽일지니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중 무죄한 자의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좋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살인자들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살인자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 살펴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동등한 거리를 두도록 성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
 에브라임은 영향력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영토에 도피성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므온이 약하거나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시므온의 영토에 세우지 않거나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법이 진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세요, 다양한 지역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에서 도망치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거리에 건설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도피성이 산간 지방의 중심부에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공평할 것입니다. 여행하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성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멀리 여행하고 있다면 피의 복수자가 길에서 그들을 덮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큼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도시를 건설하세요. 영역을 확장하면 3개를 더 추가합니다.
 따라서 19장과 4장의 차이점은 4장에 있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이 장소들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무고한 피와 정의를 흘리다

그렇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음, 피는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흘리는 피에 대해 매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거의 신성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피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글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피 도시의 사람들, 시민, 심지어 누군가가 진정으로 살인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그 범죄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피가 왜 그렇게 신성한지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Gordon McConville의 인용문을 읽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나옵니다. McCon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과 자연에 대한 관심, 땅을 보살피는 의와 바른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무명의 살인자 또는 살인자 사건

이제 우리는 신명기 21장이 접선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흘린 무고한 피를 정화하거나 적어도 구속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할 살인자나 살인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2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2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들에서 피살된 자가 발견되거나 그를 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측량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아직 기르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할지니라 성읍 장로들은 멩에를 메고 성읍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흐르는 물 있는 암소를 골짜기로 끌어내어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의 아들 제사장이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그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분쟁과 모든 폭행이 그들에게 해결될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목이 부러진 암송아지로 손을 씻을 것이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구원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소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피 흘리는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무고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땅과 백성,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 무죄한 피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할 사람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음, 그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만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것은 성문 대표만이 아니다. 온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레위인들이 있고, 나타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책임을 지고, 흘린 피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은 더 큰 이스라엘 인구를 구속하는 방법이자 땅을 구속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된 법칙인 것 같지만, 이것은 현대에 적용할 때마다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책임을 지고 "이곳은 우리 지역 사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시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건설하려는 장소

유형, 우리가 건설하려는 사회 유형에 대한 더 큰 커뮤니티의 예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전쟁에 대하여 - 신명기 20장

그래서 도피성을 찾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전쟁은 구약 율법과 관련하여 항상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20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특히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설 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전투의 규칙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약간의 규칙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향한 구축의 일부는 사고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서 20장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보거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를 이집트 땅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을 전사 테마로 보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시며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그는 이미 이집트에서 자신의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며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실제로 당신, 당신의 의, 당신의 힘, 당신이 가진 말과 병거의 수 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너희가 싸울 때에 제사장들은 나아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니와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장관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그는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것이니라 .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보기 시작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포도나무는 보통 5년, 3년이 걸리고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 “그는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면 전사하면 다른 남자가 그 열매를 따먹을까 하노라 또 약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는 떠날지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전사하고 다른 남자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다.’ 장관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구뇨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형제의 마음이 자기 마음과 같이 녹이지 않게 하라

정말 흥미롭고 전쟁에 나설 때 이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독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의 특수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본적으로 아직 가정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할 약혼자이지만 아직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집에가. 가족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물려받은 땅을 심고 그 땅을 차지하여 새 밭을 얻었고 새 곡식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일을 주신 사실을 아직 누리지 못하였다면? 늦은비와 땅이 너희를 위하여 소산을 내리리라. 당신은 아직 그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집에가. 밭에서 과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아직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에가. 집을 짓다. 그러니 가족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다음 세대에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사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실제로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정과 가족의 안녕을 확립해야 하는 경우 집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그냥 무서우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사기의 어느 부분에 꽤 큰 군대를 모으는 기드온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명기에서 본 것의 약간의 반향을 얻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돌봄 - 신명기 22장과 25장: 잃어버린 동물, 새, 재갈을 물린 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작은 법의 집합체는 신명기가 단지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나머지 창조물과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22장을 살펴보고 있고, 25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들 중 일부 또는 이 구절들 중 일부에 주제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음으로써 “너는 네 동족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네 동족에게로

돌이킬지니라. 만일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것을 네 집으로 가져다가 네 동족이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도로 주되 너는 그의 나귀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그의 옷도 그리하고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을 너희가 얻은 것에도 그리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동물들이 참여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부에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초치케와 부를 지불하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불하는 것들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밭과 의복과 솥돌과 가축은 그들의 가족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볼 때 인간이 아닌데도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 인간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소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6절에 “길 가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그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 새가 그 새끼나 그 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만나거든 네 어미는 취하지 말라. 새끼는 낳을 것이요 어미는 반드시 놓되 새끼는 취하여도 되니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지만 다소 무작위적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새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있고 새와 알을 모두 취한다면?

음,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는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땅과 인간이 아닌 창조물도 번성하는 완전하고 견고한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에 어미와 알 또는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가져갈 수 있지만 어미는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 새가 더 많은 병아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새가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취하고 하나를 죽이면 다른 하나를 먹으면 이 동물들의 한 세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 가운데 번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음, 우리는 25장에 겔보기에 무작위로 보이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대화 중간에 삽입된 법칙이지만 동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4절,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소는 종종 타작 마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작 썰매를 뒤로 끌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입마개를 풀면 땅에 곡식이 많아 소가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소는 땅에 있는 곡식의 상당 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소에게 망을 씌워 소가 이 곡식을 다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곡식을 원한다면
방금 수확한 곡식이 1년 내내 가족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동물에게 그것을 먹게 할까요?

음, 신명기는 동물이 당신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소가 먹게하십시오.

피조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에 대한 이 개념은 샌디 리히터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며, 그녀는 신명기에서 피조물에 대한 윤리적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말 멋진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녀의 기사를 더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법칙에 기초하여 자연이 실제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좋다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지배하지 마십시오.

사회윤리: 대출법

따라서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법은 사회 윤리입니다. 우리는 이 중 몇 가지를 24장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볼 때 이야기했던 일부 주제, 일부 쟁점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주제를 기반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24장 6절과 10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누구든지 멧돌이나 위짱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을 것임이니라” 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이것은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주거든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밖에 있으라 네게 꾸는 자가 그 전당물을 네게로 가져갈 것이니라 가난한 자니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지니라 해 질 때에 너는 반드시 그 전당물을 그에게 도로 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네 여호와 앞에서 네 의가 되리라 하나님.”

그러므로 법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그들의 생계를 빼앗지 말라 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유혹을 받아 곡식을 빙아 생계를 꾸러 나가고 있다면, 그녀가 담보로 바쳐야 할 것은 대출금이나 요구하는 돈뿐이다. 그녀의 숫돌. 그러나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에게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더 긴 관점을 취하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매우 다목적인 의복인 겹옷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돌돌 말아 베개처럼 눕혀서 잘 수 있습니다. 위에 올려놓고 이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거리로 나갔을 때 그것은 겸허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서약해야 하는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밤이 되어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나누는 관대함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적시 임금 지급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너희 동족이든지 너희 땅 성읍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날은 해가 지기 전이라 그는 가난하고 이에 마음을 두어 너희를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게 하여 너희로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종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 이스라엘의 하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용인뿐만 아니라 게르도 다른 사람, 심지어는 당신과 함께

땅을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둘 다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임금을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매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늦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기 위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류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 따라서 그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공정한 대가를 매우 시기적절하게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평등한 정의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정의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장 끝과 17장 시작 부분을 볼 때 이것을 조금 다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을 것이므로 이것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저는 17절과 18절을 놓쳤습니다. 객이나 고아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오직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것들을 해라.”

자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변호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또는 부양할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너희 중에 자기 땅이 없는 이방인, 이방인, 게르, 이방인

취급을 받느니라. 그들은 다른 정의 체계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정의,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과부, 고아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수확 조항[WORA]

따라서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불의에 대한 방어적인 금지에서 행복에 대한 공격적인 보장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19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4장의 맨 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실제로 농경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니라 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남은 것은 나무에 두라 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니라 포도도 마찬가지라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금지 및 관대함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법집합에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법이 있으니, 품삯을 주지 말라, 밤새도록 서약하지 말라,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이 또한 관대함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당신이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의롭게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결론 - 제로섬 게임이 아님

나는 신명기가 이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용문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Deuteronom
y가 거기에 있는 잠재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들어간다면, 사회를 현명하게 세울 수 있다면,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연과 인간을 의롭고
신의 지시에 따라 대한다면, 그것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Ruel How가 인용 한 이 인용문에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가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으로서 구성원이 서로
대화하고 공동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공동체가 됩니다. 이 대화가
없으면 개인과 사회는 추상화됩니다. 우리가 인격과 공동체의 기적을 이룬
것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아이디어를
다루는 현대 인용문이지만. 이것은 신명기를 아주 잘 반영합니다. 신명기는

당신, 개인, 그리고 당신, 사람들의 집단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euteronomy가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로섬 게임은 현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내 재산은 당신이 재산이 없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은 내
 것이든 당신의 것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제로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 플러스원은 당신의 -원이고 0입니다.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장소, 지역 사회, 주변 땅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 장소가 집합적으로 더 커지고 더 큰 곳일수록 모든
 사람을 부양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는 경제를 평평하게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지주, 땅이 없는 사람, 외국인, 과부가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사회 내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사회에 잘 투자하면 모두가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때
 참여하는 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회기 10,
신명기 19-25 사회법.